

K라면 글로벌 인기…업계 해외투자 확대



▲ 사진=농심

한국의 라면 업계가 한국 라면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농심은 이날 대표 제품 '신라면'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6,9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 중 한국 밖에서의 매출이 3,700억 원(53.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선 것은 1986년 출시 이후 처음이다. 농심은 올해 신라면으로만 매출 1조 원을, 그 가운데 해외 매출이 절반 이상인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사업 부문은 연평균 41%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에서 57%로 대폭 확대되며 국내 매출 비중을 넘어섰다.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삼양식품은 지난 8월 미국 현지법인 '삼양아메리카'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를 설립한다. 올 연말 미국 제2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농심도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며 미국, 캐나다 등 북미를 넘어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 올해 화제를 몰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삼양라면'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면이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외국인근로자 80% 넘게 줄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예년의 5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8천83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590명으로 무려 82% 급감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5천887명에서 1천86명으로 81.6% 감소했고, 단기취업(C-4)이나 계절근로(E-8) 비자를 받아 전국 농어촌 등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도 2천948명에서 504명으로 77.6% 줄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산업이나 농어촌 현장에서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고, 단기취업·계절근로는 수확철 등 농번기에 맞춰 농촌 일손을 돋기 위한 제도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처럼 급감

한 것은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극히 제한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농가에 배정될 계획이었던 단기취업·계절근로 외국인은 6천21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한국을 찾은 비율은 8.1%(504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탓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처했다"며 "외국인 일손이 귀해지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지역에 따라 군부대 대민 지원이나 대학생 농촌체험 활동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노동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서 백신 접종 완료해도 인센티브 부여



▲ 사진=shutterstock

한국 밖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에서 동일한 접종 효력을 인정받는다.

지난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부터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스마트폰 앱 쿠브를 이용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 밖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를 입증하려면 외국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그나마 모임 인원 제외 같은 혜택도 없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 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종 이력 등록과 확인서가 발급된다. 확인서는 '쿠브'를 통한 전자 증명서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두 가지 종류이다. 다만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갖고 입국한 내·외국인이 먼저 접종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 한국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관, 이들의 동반 가족도 대상이다.

당국은 접종을 마쳤지만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인도 조속히 접종 이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접종력 확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